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8. 23 ~ 2020. 9. 5 제231호



▲ 파라과이 알토파라나주 캄베시노 지역에서. 제공: 김정욱·김현의 선교사

그분의 선물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남미대륙. 거기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파라과이. 브라질과 인접해 있는 파라과이 역시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심한 통제를 시작한 파라과이는 지난 몇 달간 경제활동이 멈췄다. 어려운 이

들에게 찾아가 식료품으로 섬기면서 전도지를 나누면, 많은 이들이 전도지를 먼저 확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산과 봉쇄를 반복하며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는 이 땅에 줄 것은 생명의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분의 의

로운 손으로 사로잡으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는 자! 해같이 빛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에베소서 4:8) [GPNEWS]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언론자유에 저해

‘동성애 조장 만연’ 같은 부정적 기사 못쓰게 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할 수 없게 해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최근 월드뷰 8월호에 ‘언론에 대한 재갈인가 인권보장을 위한 자율협약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도준칙 8장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 것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병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기 등의 조항은 언론자유 침해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준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할 때 ▲성적 소수자 비하표현이나 진실 왜곡 내용과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 주의 ▲성적 소수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동성애 옹호단체가 임의로 사용해온 용어라고 밝혔다. 또 동성애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는 섹슈얼 프리퍼런스(Sexual Preference)의 한글표기를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시했는데, 이는 동성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섹슈얼 프리퍼런스’를 ▲성적 끌림을 선호하는 내면의 성적 선호 ▲그 선호하는 상대와의 성적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행위

의 개념이 없는 ‘성적 지향’보다는 ‘성적 취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 내 성윤리 또는 공중도덕과 어긋나는 행위는 언론의 비판적 평가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균형법상 추행의 예로 남성 동성애를 들며 일반인에게 혐오감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2016년 7월 28일(2012헌바258)에 판시했다. 그러나 2011년 보도준칙 제정 이후 ‘동성애 조장, 만연’ ‘동성애를 즐겨’ 등의 문구들은 기사에서 사라졌다. 이 교수는 “인권보도준칙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법한 언론보도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고 기사작성, 보도 편집시 언론사 내부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도준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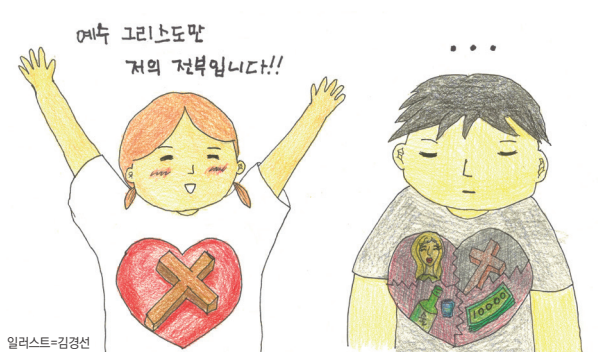
마음의 눈을 밝히사 (15)

겉모습이 달라지면 내면도 변화되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즉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제대로 부딪혀 있다면 그 복음의 결과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크게 오해합니다. 만족스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게 된 외적인 변모를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여길 경우, 진정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영원할까요?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부모를 잘못 만났다’, ‘결혼을 잘못했다’와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간증을 많은 이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도, 그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며 집사, 장로, 심지어 선교사, 목사와 같은 사역자가 되

기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로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진심(眞心)만의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닙니다. ‘전심(全心)’과 ‘진심’은 비슷해보여도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전심이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말 그대로 100%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진심은 마음의 깊이는 있으나 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심을 담아 골똘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진심은 다른 것에도 동일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일러스트=김경선

나서 손님 접대한다고 술집에 가서 진심으로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청년 관원이 진심으로 영생을 구했지만, 돈인지 영생인지 택하려고 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룩도, 영생도 취하고 싶고,

재밌는 세상 유희과 정욕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양 손에 모든 것을 쥐고서는 전심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존재적 변화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었습니까?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코로나 여파로 1년 안에 1000여 개 교회 사라진다

경매사이트에 등록된 대형 교회 180개



▲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의 자립이 어려워졌다. 출처: pexels.com

지난 8일 여의도 근처 정의당사 앞에서 개최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도모임에서 한 목회자가 대형 교회 180개 이상이 경매사이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고 기독교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실제로 예장통합 총회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열풍 이후 1년 안에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6월 24일 기독교

공보가 보도한 바 있다. 예장통합 교회는 약 4500여 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대부분 상가 임대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한, 1년 안에 약 1000여 개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의 평균 교인 수는 약 70여 명이며 건물에 있는 교회는 20%, 1500여 개 교회 내외

다. 자립교회로서 미자립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는 20~30% 내외지만 이들 교회도 건축 빛이 있거나 자립도 어려운 상태다.

예장통합교단의 약 12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최근 신도들이 약 600여 명 선으로 줄었고, 헌금은 70% 수준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오랫동안 버티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현재 유치부, 유아부는 10명 이하로 전멸 상태라는 것이다. 그나마 빛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했다.

다른 노회 소속의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는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교회를 담보로 교직원들의 사례를 주기 위하여 약 2억을 차용했으며 부교역자 사례도 30% 정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코로나 이후 합병, 경매 등으로 흥역을 앓고 있는 상태다. [GPNWS]

레바논 폭발 참사 현장 섬기는 한인 선교사에게 ‘땡큐 코리아’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폭발 참사를 당한 베이루트, 거리에서 도움을 손길을 전하는 손길들과 좌판, 도움에 감사하는 베이루트 시민들. 제공: 정바울 선교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지난 4일 폭발 참사 이후 한국인 봉사팀이 매일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 등을 방문하며 쓰레기 수거와 청소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1년부터 레바논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정바울 선교사는 이들에게 음식과 차, 장갑과 물을 나누고 다친 사람들에게 간단한 응급 처치 등으로 섬기고 있다.

정 선교사는 레바논푸드뱅크에서 제공받은 아침용 마누셰(현지 피자), 점심용 샌드위치, 도시락을 복구 현장의 봉사자들에게 나누는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선교사는 “코로나 사태로 8월 한 달간 주어진 시간 동안 이들과 커피를 마시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며 “레바논에서 이렇게 땡큐 코리아, 슈크란(아랍어 감사

인사) 등 감사인사를 많이 듣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발 사고가 항구 창고에 보관된 인화성 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이들은 정권퇴진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내각은 지난 10일 출범 7개월만에 폭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GPN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3~8.15)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100일 동안 코로나19 감염 제로(0) 베트남, 갑작스러운 재확산

지난 4월 말에 일찌감치 코로나 퇴치를 공식 선언하고 100일 이상 지역감염 제로(0)를 기록했던 베트남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재확산하고 있다고 10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최근 확진된 31명은 모두 다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거나 다낭발 환자와 접촉한 이들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다낭의 57세 남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이후 재확산이 시작됐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 경로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님,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종적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한 앞에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베이루트 폭발로 사망 171명, 부상 6000명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4일(현지시간) 오후 발생한 폭발로 사망자가 13일 기준 171명, 부상자가 6000명을 각각 넘었고 이재민이 30만 명이라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중동 교계 지도자들은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중동교회협의회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부상을 입은 이들,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오 주님, 사랑하는 레바논과 마음이 깨어진 현지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라고 했다.

주님,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구호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움이 상한 영혼까지 치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여된 교회들을 일으켜 이 땅을 섬길 기회를 찾게 하옵소서.

한국 정부,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 삭제

최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62년 만에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3일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결코 헌법으로 다룰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생명으로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이 서로를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GPN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 2020년 8월 24일 ~ 9월 5일
- 8월 24일 ~ 8월 29일 8.24,26~29(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8.24~8.28(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8.24(10시)~29(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8.25~28(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8.28(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8.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8.28(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8.28(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8.28(09시)~29(12시) ▶대구 달성 / 하늘순교교회(정**)010-9557-5154, 그 외 3교회 진행중.
 - 8월 31일 ~ 9월 5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8.31,9.2~5(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8.31~9.4(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9.1(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9.1,3~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9.4(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9.4(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9.4(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9.4(12시)~5(10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9.4(22시)~5(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1교회 진행중.
-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기획 |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 (2)

코로나19의 위기, '공동체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 열어

이 기획은 지난 229호에 게재된 세계기도정보의 저자 제이슨 맨드릭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를 담은 '글로벌 전염, 글로벌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내용의 두 번째 요약문이다. 영어 원문은 웹사이트(covid-19.operationworld.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선교 봉쇄, 그러나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주님의 지상대명령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역 봉쇄 등으로 선교의 봉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을 이용한 교회 생활이 일방통행 방송으로 진행되고 소그룹모임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나눔이 드물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전 세계적인 선교 비전 포기는 쉬워진다. 그동안 글로벌 선교에 익숙한 미전도종족집단 외에 '숨겨진 종족'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이때 우리의 한정된 자원, 재정, 관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몸 된 교회를 세계 선교에 동원할 것인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경제 하락이 세계 선교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선교에 후원하는 규모는 전체 기독교 수입의 0.1%(1/1000)이다. 경제가 타격 받을 때, 기독교적인 기부와 헌금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건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물을 파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건강 관리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



▲ 교회에서 코로나에도 난민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젝트는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최악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을 비롯해 소수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지로 부임하거나 돌아가고 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 충분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진리 앞에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정난이 있는 지금이 풀뿌리선교운동의 기회로 봐야할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다. C.T. 스티드(WEC선교회 설립자)는 "할렐루야! 돈이 또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때다."라고 말했다.

가정교회 모임, 소그룹 통한 교회성장은 지속될 것

코로나19를 통해 서구권 국가가 우월하다는 믿음이 지나간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다만,

한국, 홍콩 같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 또 개도국(개발도상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수가 선진국 기독교인의 수를 초월했다. 이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선교사 파송운동이 급증하며 현지인 중심 선교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유럽인, 미국인, 한국인과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저질렀던 실수가 동일하게 현지인 중심 선교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선교도 비즈니스처럼 하라.'는 이러한 프레임도 선교의 효율성이 비즈니스 부분에만 집중된다면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대규모 전도집회의 시대는 끝났다. 가정교회 모임이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소그룹을 통한 교회 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갈급한 필요를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용,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세계기독교연구센터에 따르면, 미전도종족 비율은 매일 7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1년에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빈민가의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이주자와 난민수용소에 갇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선교에 사명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위기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즉각적으로 베풀며 섬기기를 바란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세계적 불의(경제, 사회, 인종, 성(性)에 관한 모든 영역)에 맞서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미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불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갈등으로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선교방식은 가장 효과적 선교전략

최근 몇 년간 기독교 근본주의를 포함한 종교적 근본주의는 글로벌화의 잠식과 전통적인 정체성의 붕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증하는 민족주의는 종교적 극단주의와 연계되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 간의 긴장상태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외교 태도는 소수 종교에도 암묵적이거나 명백하게 드러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른 어떤 종교 집단보다 박해를 심하

게 받고 있다. 서구 국가의 도덕적 권위의 상실과 곤경에 빠진 해외 기독교 소수집단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압력을 가져왔고, 때로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교회 박해의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수 집단은 더 취약해지고 종교에 대한 차별, 두려움, 가짜 뉴스, 외국인 혐오와 기회주의가 극심해진다.

위기의 때에 대부분의 공동체나 지역사회는 뭉치거나 폐쇄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은혜, 환대, 관대함, 그리고 평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극심한 민족주의로 인해 세대와 정치가 분열되고, 재정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반성경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이다. 요한계시록 5장 7장의 내용처럼 모든 민족과 족속, 언어가 어린양의 보좌 앞에 함께 나오게 될 것이다.

영국의 켈트교회와 이탈리아의 베네딕토교회는 6세기 이후 유럽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공동체 간 네트워크는 중세 암흑 시대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문화와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줬다.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이 판치는 지금,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선교단체에게 지금이 기회인 때일 수 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선교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계속> [GPNEWS]

번역=본지 국제팀

CNN·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과 대기업들... 좌익이념 확산 위해 中과 협력

미국의 주요 언론과 대기업들이 마르크스 이론으로 무장된 다음세대 양성하는 일에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수 매체 내셔널 필스에 따르면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과 기업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저널리즘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칭화대 언론커뮤니케이션 학과 내에 설치된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GBJ) 스쿨에 협력해 왔다. 이 프로젝트의 협력사는 뉴욕타임스, CNN 외에도 파이낸셜타임스, 비즈니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며 이들은 GBJ 과정의 인력, 장비, 인턴십을 제공해 왔다. 또한 미국의 은행인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자선

기금단체 나이트재단 등의 대기업들은 GBJ 스쿨에 자금을 냈다.

칭화대 언론학과 류빈제 학과장은 GBJ 스쿨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스쿨 운영 방침에 대해 "정치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의 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방법으로 사건을 관찰하고 처리할 수 있게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공산당에 적합한 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의 강사진에는 미국 주류언론의 기자 및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위크 전 백악관 출입기자이자 내셔널프레스클럽 전 회장인 리처드 던햄, 블룸버그 편집장 겸 칼럼니스트인 리 밀러, 미국 애리

조나주립대 경제뉴스센터 린다 오스틴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기고가 레슬리 웨인은 객원 연구원으로, CNN 앵커 파리드 자카리아, 페이스북 인사 담당 부사장 로리 골러가 객원 강사로 참여한다. 또 블룸버그는 실시간 데이터와 강력한 뉴스 검색 도구인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단말기 10대를 공급했다. GBJ 스쿨에서 배출한 인력은 CCTV, 신화통신, 중국일보사, 인민일보 등 중국 공산당 매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 등 서방 언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 주류언론의 좌익 성향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 언론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 미국 주요 언론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추세다. © 복음기도신문

와 같은 매체를 주로 인용해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 보는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이 좌익 관점으로 해석된 기사다.

현재 미국 언론은 꽤 오래전부터 다문화주의를 가져오는 PC,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되는 '이념적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인 '이념적 정의'는 세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구분하며, 억압자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고 피억압자에 대한 비판은 증오발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류언론이 갖는 사상적 배경에는 공산주의 이념의 근원인 마르크시즘을 문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네오마르크시즘이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이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억압당하는 자를 정의의 편으로 해석하기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39)

문화 속에 나타난 용의 존재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용의 존재는 문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라크의 전 대통령이자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느부갓네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사담은 거액의 돈을 들여 고대 바벨론 도시를 재건해 자신의 별장을 만들었다. 고대 바벨론은 마른 모래에 묻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벽돌은 마른 모래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슈타르(Ishtar)문 벽에서 그들은 사자와 용의 문양을 발견했다. 왜 2600년 전의 벽돌 벽에 사자와 함께 용을 새겨 넣었을까? 그들은 용맹한 사자처럼 용이란 존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 기원전 300

년에 인도의 일부를 정복했을 때 병사들이 용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어떤 로마 모자이크는 두 마리의 긴 목을 가진 용들이 싸우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인들이 서기 200년대에 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성 게오르기우스(Saint George,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는 서기 275년에 용을 죽인 것으로 유명하다. 8~11세기 사이의 고대 영어로 작성된 작자 미상의 영웅 서사시인 베오울프에도 용이 등장한다. 베오울프는 용 두 마리를 죽였지만, 세 번째 용에게 죽임 당했다. 현대 영어로 번역한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베오울프는 용 그랜델의 작은 팔을 잡아 뜯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했다.’ 용의 팔을 잡아 떼었다는 내용은 바벨론의 원통 도장에 새겨져 있다. 사람과 같이 살았던 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홍수 후(AFTER THE FLOOD)’라는 책을 추천한다.

프랑스에서 물 밖으로 나온 용을 죽인 어떤 사람이 그것의 머리를

잘라서 건물 모퉁이에 붙여 놓아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건물에 붙여진 용의 머리를 ‘가고일’이라고 부른다. 또 한 아일랜드 작가는 사람들이 꼬리에 철 못을 가진 용을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에 큰 대못들이 박혀 있다. 11세기의 바이킹 목판화에는 용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00년 전이다. 바이킹은 1000년 전에 용머리를 배에 달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바다의 거대한 용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크레큰’이라고 불렀다.

이 외에 많은 문학과 문화에서 용의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게르만 신화의 전설적 영웅 시이그프리드가 용 패프너를 죽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독일의 12세기 한 성의 벽돌에 용이 새겨져 있다. 17년 동안 중국을 유람했던 마르코 폴로는 돌아와 중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황제가 퍼레이드 할 때 자기 전차를 끌게 하려고 용을 길렀다고



▲ 고대 바벨론 도시 이슈타르(Ishtar)문 벽에 새겨진 용의 부조. 출처: dia.org 캡처

했다. 왜 그는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실제로 황제가 퍼레이드 할 때 자기 전차를 끌게 하려고 용을 길렀기 때문일 것이다.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벽에 공룡을 새겨 놓았다. 아마 그 주변에서 공룡을 사냥했을 것이다. 1925년에 뗏목을 타고 서쪽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한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벽에 공룡의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완전히 망친다.” 또한 그 공룡 사진을 공룡 전문 과학자에게 최근 보여 주었다. 그는 “이건 공룡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구에 출

현하기 12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매우 의아하다.

첫째로, 그가 12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그가 ‘1200만 년’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죽었다고 배운다. 지구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1770년에는 지구가 7만 년 되었다고 했다. 1905년에는 20억 년이라고 했으며, 1969년에는 35억 년이라고 했고, 요즘은 46억 년이라고 한다. 지구는 일 년에 2100만 년씩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 1분에 40년 쯤이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주님이 이불 펼 곳을 찾아주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신 1:33)

일본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한국에 집이 없다. 시골엔 부모님이 계시고 각 도시에 형제들이 살고 있지만 오랜 시간 머물기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집이 없는 한국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올 2월 잠시 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일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비어있는 선교센터 숙소를 구할 수가 없다.

딸과 함께 배낭을 하나씩 메고 우리 부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보다 주님은 앞서 행하셨다.

“선교사님 어디 머무실 데 있으세요? 오셔서 쉬었다가 가세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불 펼 곳을



제공: 안호성

찾아 주셨다. 따뜻한 이불을 펴고 눕는 것으로 그 하루가 행복했다. 먼저 가셔서 이불 펼 곳을 찾아주시는 세밀하시고 따뜻한 사랑이다. 허락하심에 어느 곳이든 감사함으로 나아가니 오늘도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 주신다. 코로나19로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처음 일본선교를 준비할 때가 생각났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사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영혼들이었다.

“그들에게 갈 수 있는나?” 물으셨다. “주님!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사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

삶의 기본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비행기를 기쁨으로 탔다. 주님은 우리 가족보다 먼저 그곳에 가셨다. 해결 되지 않을 것 같

은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주님이 하시니 아무 일 없듯이 해결되었다. 성도들은 과부의 두 램돈 같은 물질을 모아 헌집이지만 도배와 장판을 깨끗이 한 집을 준비하여 놓았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더 좋은 소망으로 기뻐하며 함께 바라보았더니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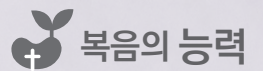
일본으로 간 첫날밤에 이불을 펴고 온 가족이 누워 그 따스함에 감사했다. 먼저 가서 이불 펼 곳을 준비해 주셨다. [GPNEWS]

고정희 선교사

필자는 2011년 4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 2014년 일본 속에 있는 제일 조선인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우리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나, 이들을 섬기고 있다. 저서로 제일 조선인 선교 간증인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었다’(도서출판 나침반, 2020)가 있다.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성경 지식과 영적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베일을 뚫고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있다. 바로 ‘끓어오른 마음’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빛이 차단된 곳에서 여호와 앞에 서려면 그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다. 제사의 피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임재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빛이 허락되었다.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는 별로 없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영적 능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정말 모순이다.

신앙적 도움은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줄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해줄 수 없다. 우리가 갈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줄 수는 없다. 서로를 의지해서 무엇을 해보려는 애씀을 멈추고, 잡다한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라.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 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선교공동체 건축으로 성전 건축의 꿈이 이뤄졌어요”

성전을 지어가는 조영희·하헌미 집사 부부



© 복음기도신문

조영희, 하헌미 집사 부부에게는 꿈이 있었다.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은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교회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이 함께 사는 곳을 설계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영희 집사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금홍선교단체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Shadow of the Lord God Almighty Ministry, SHam. 웹)의 생활공간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꿈이 생각났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꿈을 이뤄가고 계시를 깨달았다.

- 오랜 꿈이 웹이란 선교단체를 통해 이뤄지게 된 것이군요.

조영희(이하 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건축 얘기를 하면서 말아서 해줄 수 있겠냐고요. 자세한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동생이 얘기했다면 무조건 오케이였죠. 믿었으니까요. 건축주를 처음 만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교 운동장에 컨테이너가 달랑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생각해보니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웹을 설계하기로 하고 회사 사장님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보다 더 기쁜 얼굴로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설계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번 무료로 섬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이 좀 넘게 일을 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다

하헌미(이하 하): “사장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더욱이 그 건물에 들어간 벽돌도 주님이 갑작스럽게 주셨어요.”

- 벽돌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조: “설계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는 분의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기술적인 것을 배웠던 분이었어요.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벽돌회사 부사장으로 직장을 옮기셨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웹 건축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먼저 벽돌이 있는데 쓰겠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지?’ 놀랐죠. 그 무렵 건물 외장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대뜸 “벽돌로 디자인하면 좋죠.”라고 대답했어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달라 길래 알려드렸더니 그 회사에서 기부를 했어요. 마침 그 공장이 웹 근처였어요. 산 너머에 있더군요. 그 회사에서도 벽돌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하: “더욱이 그 벽돌의 통로가 됐던 그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조: “그분도 교회 집사님인데, 그 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됐어요.”

- 그런데 아까 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조: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1년 가까이 매달 두 번은 서산에 와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복음도 나눠주시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의 삶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설계와 감리를 하다보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건축주가 맘에 안 들면 문제가 생기죠. 작은 주택에서 큰 건물을 공사하는 것까지 관여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웹을 지으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듣게 됐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문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설계가 미진해서 중간에 보완하는 일도 생겼어요. 한번은 운전하고 가면서 ‘한소리 듣겠다. 잘 넘겨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허락하신만큼 해야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하던 분들하고 달랐어요. 시시비비를 따져서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다.’고 하셔서, 저는 답을 못 들은 것이 됐어요.(웃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지?

- 해결은 잘 됐나요?

조: “처음 솔직한 심정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저로서는 의아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끝까지 이리실까? 근데 정말 끝까지 그러시더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집을 한 채, 두 채를 지으면 내 직업관이나 세계관이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설명할 때 뜻을 자루에 담아놓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송곳 같은 사람이에요.”

- 표현이 재밌네요.

조: “설계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건축주의 필요를 파악하고, 땅을 파악해서 가장 훌륭한 것을 만들고 주인이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주장이 강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죠. 설계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하다보면 날카로워지고 제 의견을 주장하던 편이었어요. 경력이 쌓이고 이런 것이 더 심해지다 보니 흥기가 되더군요. 결국 건축주 관계자하고도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귀 기울여 듣는 척 해도 결국은 내 주장을 하기 위해 들었어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웹을 건축하면서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항해야 할 상대가 없어진 거죠. 그냥 다 받아주시니까요. 제안을 하면 거꾸로 물어보세요. 뭐가 좋으냐고요. 들으시고 그럼 의견대로 하겠다고, 허락하신대로 하라고

하세요. 일이 물 흐르듯 진행되면서 너무 편했어요.”

- 웹 옆에 있는 헤브론선교대학교 건물도 역시 설계와 감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조: “네. 그때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골조가 마무리 됐을 때 건축을 의뢰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이것저것 확인하며 둘러보고 있었는데 3층에 올라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설계하신 분이 보기에 설계한 의도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이 들으신 거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설계를 시작한 이후로 건축주에게 그런 질문은 처음으로 받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동료 건축가들에게 이걸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자랑으로만 맴돌던 이 질문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 일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 앞서 직업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직장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조: “복음의 가치대로 사는 게 쉽지 않더군요. 어떻게 사는 건지는 결론은 잘 알죠. 내가 손해 보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을 매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잘못 선택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한 번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기준이 바뀐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회사를 위해서나 건축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예를 들어 설계

는 팀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감이 들어왔을 때, 팀원을 배치할 때는 불꽃 튀는 경쟁이 있어요.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과 팀을 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른 팀으로 배정되고 저는 경력이 짧은 사람들과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알지만 더 이상 송곳 같이 내 주장만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도 주저하게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손해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상황인데도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가?

하: “옆에서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침마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해요.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파송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동료도 생겼어요.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조: “주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성공과 성과를 위해 일했는데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팀원, 협력업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효율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다보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전 같았으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요. 덕분에 일하면서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자리 옆에 성경도 두게 되고, 더 믿음을 써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나? 생각하다보면 선교사님들이 생각나죠. ‘허락하신 만큼 해야지.’ 정말 내 마음이 더 낮아져서 송곳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건물 전경. © 복음기도신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3)

예배에 드러난 영적 질병 증후군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걸으려는 신앙의 모양이 갖춰졌다. 구약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기회가 주어진, 포로귀환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적의 독화살이 날아왔다. 영적 예배의 위기에 빠졌다. 영적 질병의 증후군이 예배라는 영역에서 드러났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 1:6)

주님과 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영적 지도자요,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형식만 남아있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책임은 감당했는데 정작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선고가 떨어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이들

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말 1:13)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은 왕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왕을 모욕한 죄로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형식만 지키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갖다 바쳤다. 예배가 형식만 있고 경건도, 능력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없으니 깊이 병이 든 것이다. 영적인 깊은 질병이 예배로 나타났다.

제사의 행위 각각에는 다 의미가 있다. 제물을 잡는 것부터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 제물을 태우는 것, 물두멍에 손을 씻는 각 의식마다 의미가 담겨있다. 흉내 내며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

독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아까워한다. 영적인 바로미터는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중심이다. 그래서 예배의 위기가 오면 예배를 경멸하고 코웃음 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말 2:17)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며 모든 예배행위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죄를 저지르고 악을 버리지 않는 것을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 마음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음란을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모양만 멋있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일러스트=이예원

을 괴롭히는 것이다. 형식만 있는 예배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다. (2018년 2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G&P 신간

주님의 말씀으로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을 보라

“마음을 찢는 회개는 우리에게 살이 된 문제를 마음에서 떼어 내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를 회개합니다. 마음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태어난 책 ‘주께서 피워내시는 대로’에 등장하는 저자 이선세 목사의 고백이다. 하나님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회하는, 아마도 국내 가장 긴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이 목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그는 말했다. 목회를 근사하고 멋지게 피워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했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면, 스스로 금욕하고 다스려 절제하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 싶어 죽도록 노력했다. 눈물이 나도록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나 그 결

과는 깊은 좌절이었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기까지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사 62:1) 번제단이 있는 시온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친히 당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것을 보게 됐다.

그리고 그 동안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돌이킴, 믿음을 보시고, 성령, 헌신, 임마누엘, 증언이라는 6개의 주제로 말씀을 붙잡고 씩씩한 은혜를 오롯이 담아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외치고 싶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아담조차도 에덴동산에서 속았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한 맺힌 마음을 아담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터인데 아들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다. 그것이 인간임을, 바로 나임을 잊지 말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는 포



이선세 지음 | 토브원형출판사 | 280p | 1만 4천 원 | 2020

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받고, 낙태죄가 폐지되고 동성애가 문란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개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외친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GPNEWS]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부부는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헌신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때 모아둔 선교 훈련비도 섬기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헌금했다. 이후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계획해서 사는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우리는 선교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고 잠시 동안 친정집 2층에서 지내게 됐다. 이곳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

내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재정이었다. 재정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루는 재정도 바닥이 난 상태였고, 먹을 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계시는 1층에 내려가서 밥솥에 뜨끈한 밥,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을 얼마든지 꺼내 먹어도 되지만 참았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싶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주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



일러스트=고은선

에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옥수수를 땀는데 내 생각이 나서 몇 개 가져다준다는 전화였다. “주여! 와, 진짜 주님!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주시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

다. 2층 마당에서 후배가 오길 기다리는 내내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후배를 만나자마자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눴다. 밥을 사주겠다는 후배를 말리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맙

다는 말을 전하고 헤어졌다. 까만 봉지 안에는 손바닥만한 옥수수가 7~8개 정도 들어있었다. 이 귀한 것을 남편과 둘이서만 먹을 수가 없었다. 맛있게 삶아서 조카들에게 주고 2개는 남편과 하나씩 먹었다. 나머지 옥수수를

가지고 가까이 사는 불교신자인 막내이모를 만나러 갔다. 옥수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고백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이모는 당장에 옥수수를 맛보시진 않았지만 주님이 이모에게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옥수수 통해 맛본 믿음 재정 원리

주님은 옥수수를 통해 믿음 재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내게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나눌 때,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인 것 믿고 주님 나라와 의를 더욱 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어느 날이다. 지체(肢體)에게 딸기 한 팩을 받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이었다. 하나를 먹었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건 나눠 먹는 거라고 공동체 동생들에게 나눠주자고 권했다. “주안아! 주안이가 이 맛있는 딸기를 나누면 동생들도 맛있게 먹고, 나중에 주님이 또 주신다. 더 많이 주실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 주안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의 질문에 딸기를 혼자 다 먹고 싶어 하는 아들은 마음에서 씨름했다. 아들은 고민 끝에 동생들과 나눠먹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비닐봉지에 딸기를 나눠 담았다고 했다.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몇 개 안되는 딸기를 먹으면서 만족하는 아들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참 감사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날 저녁 다른 지체를 통해 또 딸기 한 팩을 주셨다.

“와, 주안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주님이 또 주셨네! 나

누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들이 말했다. “또 주셨네!” 또 주신 딸기는 아들 혼자서 다 먹게 했다. 행복해하면서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100:5)

재정영역은 매번 믿음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잠깐 맡기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다. ‘너무 조금인데? 이런 것도?’하며 별 거 아닌 것들도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지체에게 사용되게 하셨다. 주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선교 훈련비로 모아 두었던 재정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나의 삶을 주님께 책임져 주셨다. 더욱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 할렐루야! [GPNEWS]

김가영 선교사

부흥을 위하여

한국 정부, 탈북민 자립 도와야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의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탈북민 한성옥 씨 모자 사망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보호 중심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인 보호에 그치지 말고 이들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육아 부담,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진 연구위원은 “한국의 여성들도 출산, 양육이 어려운데 이들 여성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고, 대리 양육자, 특히 친정 부모, 이웃과의 교류가 없이 홀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탈북민 72%가 여성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3만 3600여 명이며 이중 약 72%가 여성이다. 송용욱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과장은 이날 취업지원사업, 가족결연사업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지인들을 늘려가면서 이들이 소통할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

선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의 박명숙 이사장은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 또는 체제 우위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 한성옥 씨와 여섯 살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GPNEWS]



▲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센터인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 출처: voakorea.com 캡처

양강도 혜산, 가스폭발로 주민 9명 사망... 당국은 “김일성 초상화 안전한가?” 체제 선전 기회 찾아

지난 3일 저녁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살림집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4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날 사고는 3일 저녁 6시 10분경 혜산시 탑성동의 한 살림집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에 불이 붙어 LPG 폭발로 이어졌다. 특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웃집의 LPG도 총 10여 차

레 연쇄 폭발했다. 소식통은 “북한 특유의 다세대 주택인 하모니카 사택 한 동이 이번 폭발로 다 날아가서 숯덩이가 됐다.”면서 “안에 남아 있는 재산이 한 개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폭발 여파로 주민 6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0여 명이 화상을 입어도 (道) 인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 중 3명은 4일 아침 사망했다. 아울러 인근의 살림집도 불에 탔다.

화재 진압은 이웃 주민들에 의해 이뤄졌고 1시간 반 동안 이뤄진 작업에도 소방차는 결국 출동하지 않았다.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국은 별다른 보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동(洞) 차원에서는 쌀, 이불, 옷을 포함한 필수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 라고 하나 이마저도 주민들에게 걷는 ‘세부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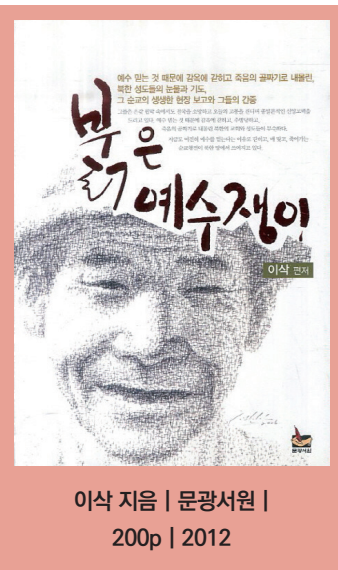
졌다. 심지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택 안에 모셔진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안전하게 내온 집이 있었다.”는 식으로 체제 선전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시(市) 사회안전부는 국경경비대 초소장을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에 관련 처벌도 이어질 전망이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이삭 <붉은 예수쟁이>

‘내래, 세계 기도했시오.’ 부끄럽지 않게 말해주고 싶다



이삭 지음 | 문광서원 | 200p | 2012

이 책은 북한을 다녀온 일꾼,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자들, 북한의 성도들과 사역자들, 탈북민들과 귀순자들의 편지와 일기, 고백들을 엮은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결코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는 없는 책이다. 답답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기

록된 북한 성도들의 고백은 단번에 소화할 수가 없어 오랫동안 꼭꼭 씹어야 겨우 삼킬 수 있었다. 나처럼 대강 아는 지식으로, 어설플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전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강력한 빛이 보였다.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단번에 내어 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는 참 빛.

평생 성경 한 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북한의 성도들. 성경을 암송한 이의 기억력에 의지하거나, 손으로 베껴 쓴 성경수첩을 닳도록 읽고, 간간히 주파수가 잡히는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받아쓰는 사람들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은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했다. 방만한 친척이 성경을 너무나 원하는 것을 눈치챈지만 자신에게도 유일한,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차마 주지 못했음을 내내 안타까워하는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토록 최고의 대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공개처형 당하는 북한

책 몇 장을 읽다가 멈추고 갑자기 방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에 거주장스러운 삶의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았다. 북한의 성도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잔인하게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수용소에 갇혀 모진 노동과 고문에 시달려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편안하게 책상 앞에 앉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눈을 질끈 감게 된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도전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두려웠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정작 이 모든 것을 그 가치대로 대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웠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컸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핍박의 중압감에 압도되었으나 깊이 들여다볼수록 감격과 함께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고통과 외로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긴장감을 뛰어 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절대 믿음과 천국소망이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녘 땅 지하교회의 생명력은 명목화, 세속화, 인본주의에 휩쓸려 떠나려가면서도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북한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적당히, 균형 잡힌, 안전한 신앙생활을 ‘괜찮다. 문제없다.’ 하며 다독이는 한국교회의 안일함인지도 모른다.

같은 복음을 받았다. 한 성령님 안에 있다. 북한의 교회를 통해서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도 이 땅에서 전부를 내어드리는 순종과 사랑으로 높여드리고 싶다. 언젠가 북한의 교회를 만나게 되면, 눈물 속 닦으며 ‘내래, 세계 기도했시오.’ 부끄럽지 않게 말해주고 싶다. [GPNEWS] 이귀영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7)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끼(도서출판 쥬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순간 등 이중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 나다움 도서에 선정된 '딸 인권 선언'.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

어난 토끼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뿔뿔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둥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

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계속> [G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7. 23 ~ 8. 1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호 김경선 김사희 김선례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신 노성미 노은옥 문미현 박상기 박숙자 박종호 안민자 안수경 유국주 윤경석 은종숙 이남준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최근희 최승리 최점옥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GNA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동교회 새순교회 웹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광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원전축설비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잠룡양덕교회 처음사랑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